

월운스님에게 듣는 경전이야기 <13>

이토록 많은 세상 언제 생겼을까?

(715호에 이어서) 이러한 세계마다에 이름이 있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사바세계(娑婆世界)라 한다. 현재 석가모니(釋迦牟尼)부처님의 교화하심 국토이지만 다른 불국토 역시 그와 같은 공간에 슬한 중생이 의지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국토(國土)를 의보(依報)라 하는 것이다. 그 안에 살고 있는 중생들을 정보(正報)라 하니, 국토의 예정은 거기에 태어날 동안중생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모두가 정보의 배성이 되기를 발원하라는 것이 이 국토설의 취지이다.

이토록 많은 세계들은 언제 어떻게 생겼을까. 물론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즉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냈다는 것이 불교의 대의이니, 답은 그 근처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의례, “나보다 먼저 생겼고, 나보

그렇다면 어떤 순서로 무명에 의해 이 세상이 생겼는가. 무명은 어두운 것이어서 항상 밝음과 상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무명의 어두움이 밝음을 상대하려는 반대개념이 ‘에너지화’해서 부단히 마찰을 일으키니, 이것이 바람이다. 이 바람의 돌레와 두께가 점점 커지면서 넓은 우주공간에 세력권을 형성하니, 그 두께와 지름이 무지하게 큰 원판(圓板) 같은 우주정거장 같은 것을 만들어낸다. 그것이 풍륜(風輪)이다. 풍륜은 계속 움직임을 멈추지 않음으로써 마찰이 생겨 열이 일어나서 불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다시 하나의 원판으로 변하여 풍륜위에 포개지니, 그것이 화륜(火輪)이다.

화륜의 뜨거운 열기와 풍륜의 찬바람이 맞부딪쳐 서로 겨루니, 증기가 발생하여

오늘의 ‘나’는 ‘무명’에 갇혀 몸과 세상을 만든 것

다 더 큰 우주를 내가 만들어냈다는 말을 어떻게 믿으라는 것인가” 하고 달려든다. 그러나 이것이 불교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인 동시에 불교의 맛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

이 말씀을 이해하자면 먼저 나라의 말의 정의를 정립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의 이 육신뿐이 아니라 나의 마음, 나의 말, 나의 동작이 모두 나라의 점에 동의해야 한다.

나아가서는 오늘의 내가 아니라 지난날 나의 뿌리인 무명(無明)의 소처라는 것이다.

무명이란 글자 그대로 밝음이 없다는 말로서 어리석음(癡)이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 오늘의 나는 지난날 나의 무명이 길을 잘못 선택해서 이 세상도 만들어내고, 이 몸도 받아서 여기까지 깊숙이 빠져 들어왔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지난날 무명에 끄달리지 않았더라면 이 몸뚱이나 이 세계라는 틀 안에 갇혀서 살 것이 아니라 훨씬 자유로운 세상에서 즐겁게 살 것이라는 것이다.

물이 생기고, 그것이 다시 크게 세력을 형성하여 화륜위에 포개지니, 이것이 수륜(水輪)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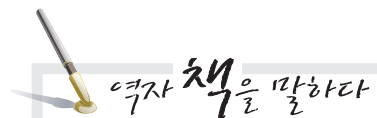
수륜이 차츰 오래되자 바탕인 풍륜의 영향을 받아 수륜의 표면이 식으면서 퇴적층이 생기는데 수륜의 열기와 풍륜의 힘으로 높낮이가 생기니, 이것이 지륜(地輪)이며, 아울러 우리가 살고 있는 대지와 산하와 바다이다.

요즘 세상에 이 같은 지구과학이 먹혀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이해하나, 어떤 위대한 신인이 장난처럼 이것저것 주물러서 세상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과학적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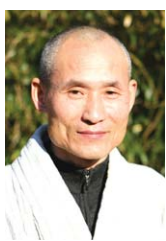
과학적이기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속마음은 중생들의 마음이 맑으면 극락이요, 마음이 흐리면 지옥이라는 점을 강조하시려는 것이다.

예컨대 하나의 보름달을 두 사람이 바라보는데 슬픈 사람은 달도 슬프다 하고, 즐거운 사람은 달도 즐겁다 하는 것과 같다.

봉선사 조실



법구경 이야기 1·2·3 무념·응진 역(옛길 퍼냄)각권 2만5000원



법구경 주석서

시대 초월한 ‘삶의 안내’



미얀마에서 오랫동안 수행하면서 느낀 점은 대승불교와 남방불교와 차이점이다. 남방불교는 현실적이고 실천적이며 형이상학적인 이론이나 불필요한 의식이 모두 배제된다. 예불시간에는 삼귀의를 하고, 경전을 암송하고, <자애경>을 외우며, 모든 중생들의 번영과 행복을 위해 자애의 열을 보낸다. 붓다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려 남아 있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모두가 자리에 앉아 마음을 맑히는 수행을 한다.

대승불교는 의식이 많다. 여러 가지 행사가 자주 열리며, 염불, 주력, 기도, 108참회, 사경, 잠선 등 수행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또한 새로운 수행 프로그램을 개발해 현대인의 주의를 끌려는 많은 노력을 한다. 대승불교의 경전은 모두가 함께 성불하는 이상적인 불국토를 그리고 있다. 이런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신도수가 줄어드는 아이러니가 일어날까?

남방불교는 의식도 없고, 기도도 없고, 제사도 없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지도 않고, 오직 위빠사나 수행만 하는데도 온 국민이 불교신자이며 어디에서나 탐과 사원을 볼 수 있는 불국토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스승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붓다의 가르침의 원형을 보존하려고 노력하고, 방편이 아니라 바른 법으로 신도들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근본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하는 중에 이런 훌륭한 가르침을 우리나라에 알리고 싶은 강한 열망이 일어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한국 불자들이

에게 근본불교를 알리는 것은 비구의 의무이며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선택한 책이 <법구경> 주석서이다. <법구경> 주석서는 남방의 스승들이 법문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책이며, 초급 팔리어 교재이고, 불자들의 기초교리서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법구경> 번역서들이 많이 있지만 <법구경> 주석서에 대한 번역서는 앞서 두 번 번역되었다. 하지만 이 두 번은 주석서에 대한 번역이 아니고 요약본이다. 여기서 <법구경>과 <법구경> 주석서에 대한 차이를 알아야 한다. <법구경>은 계승 모음집이고 <법구경> 주석서는 계승을 옮겨 된 배경 이야기이다. <법구경> 주석서는 부처님 당시에 일어난 유명한 사건들을 거의 다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주석서가 곧 부처님 일대기이며 초기불교의 역사이기도 하다. <법구경 이야기>는 법구경 주석서 (Dhammapada atthakahata)를 우리나라 최초로 완역한 책이다.

또한 <법구경 이야기>에는 주석서에서 제목만 언급하고 있는 <자따까(전생담)> <담장벽경> <자애경> <화살경> <행복경> <보배경> <늬움경> 등을 삽입했다. 해제에서는 붓다의 개념과 <법구경> 주석서에 나오는 사건들이 붓다의 생애 중 어느 시기에 일어났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당시의 출가 제자와 재가 제자들에게 대해 자세하게 각주를 달았다. 또한 아비담마(논증)에서 설명하는 불교 세계관을 부록으로 추가했다.

주석서에는 여러 가지 수행법, 즉 몸의 32부분에 대한 명상, 까시나 명상 등과 같은 사마타 수행과 현상의 본질을 통찰하는 위빠사나 수행이 등장한다. 주석서에 나오는 수행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주석서를 통독했다고 하더라도 본질을 알지 못하고 곱질만을 취하는 어리석음을 범한다. 그래서 사마타와 위빠사나에 대한 수행법을 부록에 첨가했다. 솔직히 나는 불교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학자가 아니고 수행자이다. 그리고 이런 수행법을 모두 경험해보았기 때문에 수행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덧붙일 수 있었다.

<법구경 이야기>는 고대에 일어난 어떤 특별한 사건과 관련해서 붓다께서 내리신 가르침이지만, 시대를 초월해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의 원천이며 삶의 안내서이다. 지혜로운 이라면 삶의 어려운 문제나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책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물질적인 성공보다는 정신적인 성취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다. 이 소중한 책을 만났다면 더 이상 방일하게 세월을 보내지 말고 항상 마음챙김으로 살아가야 하리라. 이 책이 독자들의 삶에 커다란 이익이 되기를...

무념 스님

포교현장의 감동과 깨침 갈피갈피 담아



삶에서 깨치는 금강경

장인석 지음 정우서적 펴냄 11만원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구하려는 마음을 낸 선남자 선여인은 어떻게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43년의 교직 생활을 마치고 여주 신륵사 상임포교사로 활동 중인 장인석 포교사가 삶의 갈피갈피에서 얻은 감동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모두가 함께 <금강경>을 읽고 그 공덕을 나누길 바라는

저자의 원력은 강을 건너는 뱃목의 비유처럼 얽매임 없는 자유를 선사한다.

일선포교현장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저자 스스로의 깊은 연륜이 배인 <삶에서 깨치는 금강경>을 통해 ‘내가 발하는 마음, 내가 유지해야 하는 마음, 내가 다스려야 할 마음’을 당부한다. 일상 속에서 ‘나’의 마음가짐, 나의 실천으로 보리심을 일으켜 바라밀을 이루길 바라는 저자의 축원이다.

대승심(大乘心)과 믿음으로 해석한 <금강경> 전체 32분(分)은 발심 수행자들에게 확고한 주춧돌이 되고 있다.

기연숙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답답하면 물어라	법륜	정토
2	이름다운 마무리	법정	문학의 숲
3	스님 마음이 불편해요	법륜	정토
4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5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월호	불광출판사
6	행복하기 행복 전하기	법륜	정토
7	인과경	현담	선
8	체험으로 읽는 티벳 사자의 서	강명희	불광출판사
9	아발로키테수위라, 당신은 나의 연인	월호	운주사
10	실과 영혼의 비밀	대승불교강우회	양우

※ 불서종편 운주사 제공 (02)3672-7181



www.buddhabook.co.kr 인터넷 불교서점 **붓다북** 02)953-7181